

# 책의 실용성과 미학적성

이재선

서강대 교수·국문학

이태준의 수필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이를 잘 음미해 보면, 요컨대 책은 ‘읽는 것’으로서의 실용성을 갖고 있음은 물론 ‘보는 것’ ‘어루만지는 것’으로서의 미학적성 내지 완미성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책은 원천적으로 읽혀지기 위한 실용적인 독서대상인 것이 사실이지만, 보관과 소장 위함 문화적 장식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난한 문학청년의 삶을 그린 현진건의 단편소설 <빈처(貧妻)>에서도 “구차히 얻어 산 몇권 양책의 표제 금자가 번쩍거린다”고 책을 묘사함으로써 물질가치에 맞서는 정신적 자긍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책은 그 독자들에게 가치있고 보람있게 읽혀질 수 있는 정보와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공들인 형태 속에 담겨 있을 때 훨씬 더 책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책의 문화현상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지적해서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편향된 나머지 책의 미학적성이 형편없이 약화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것은 수없이 발간되는 시집의 경우로 대표된다. 수많은 시집의 모양새나 디자인·장정상태가 너무 초라하고 획일적이고 볼품이 없다. 어느 출판사를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알뜰한 사이즈에 똑같은 편집에, 너무 책모양이 국화병처럼 획일화되어 있어서 멋과 개성이 없고, 서가에 오래도록 꽂아놓아둘 품격보다는 그저 가방 속에 휴대용품처럼 끼워 넣는 실용주의의 규격형태이다. 어디서 잃어버린다 해도 도무지 아까울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2,30년전 옛날의 시집들보다 멋에 있어서 훨씬 모자라고 초라하고 상품미학적성마저 부족하다.

시집이 왜 이렇게 다양성도 없고 멋이 없어지고 있을까. 시의 대중화현상에 연관된 상업적 실용성 때문인가 후대의 실용적인 관련성 때문인가. 어쨌거나 오늘의 우리 시집을 보면 펼쳐 읽기에 앞서 먼저 안타까워진다. 물론 시집이 호화로운 장정으로 발간되어야만 책의 미학적성이 이루어진다고나 시가 존중의 자리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시집들이 개성과 멋을 지닌 모습을 지녀주었으면 한다. 시인들의 고결한 서정과 영혼들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실용적인 깡통에 포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뿐 아니라 대량생산된 소모적 상품과 같게만 보인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멋과 개성이 있어 서가에 꽂아두고 볼 다양한 시집들의 출현을 바라고 싶다.

한편, 우리의 출판문화는 책의 실용적인 기능의 측면에 있어서도 배려가 부족한 현상이 없지 않다. 잠재적인 독서인구로서의 노인독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출판문화는 한심할 정도로 무관심의 망각상태에 있거나 배려부재 상태이다. 즉, 노인의 시력상태를 각별히 고려한 큰 활자체의 출판물이나 책이 별로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노인학이란 학문이 가능해질 정도로,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노인들의 일상이 거의 소외거리가 없어서 황막한 데는 이들이 읽을 책이 없다는 사실이 큰 요인이 된다. 노인층 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작은 활자의 책을 노인의 독자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는가. 노인들이 책과 멀어지는 것은 관습적으로 책과 멀어지게 마련인 노인들에게도 그 원인이 없지 않지만, 활자문화로부터 노인들을 ‘고려장’ 화시키고 있는 오늘의 노인부재의 실용성없는 출판문화에 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 현상에 있어서는 우리 출판문화는 근 1세기 전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지 인터뷰	2	“좋은 책을 한권이라도 더 읽어야죠” ‘청소년에게 책보내기’운동 펼치는 이성원씨
저자 인터뷰	3	《한국의 물시계》 펴낸 남문현 교수
특집/우리의 도서관 문화	4	‘도서관법’ 얼마나 실효 거뒀나 5 빈약한 공공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이용훈 6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은 있는가—허병두 7 대학도서관장은 전문인이어야 한다—김정근 8 ‘전문성’ 갖춘 전문도서관 드물다 10 거듭나야 할 50살의 ‘국립중앙도서관’
화제의 출간	11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CD롬 출시
출판화제	12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 조선품물 13 인기소설가들 희곡집 나란히 출간 14 새 경영전략을 향한 CALS혁명의 파도
화제의 신간	15	최종고 지음 《법과 미술》·외
21세기 출판주역들	16	깊이와 새로움으로 승부한다 길벗 출판사의 이종원 사장
초점	17	동맥경화증 앓는 전국의 소서점들—최태원
서평	18	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김진영 최영애 《한자학 강의》—이규갑 19 뒤비 외 《프랑스 문명사》—백인호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이승건 20 하이젠베르크 《인자, 인간, 자연에 대한 단상》—홍성렬 황상의 《역사와 사회 속의 의학》—안형식 21 김춘미 《음악학의 시원》—허영환
기획 시리즈	22	TV와 함께 나 자신 들여다보기—김창남
화보	24	21세기 정보메카의 꿈을 띄운다
책이 있는 에세이	26	책을 사랑하는 나만의 방식—정한용 27 불안한 실존의 죽음읽기—이주현
이 책 그 사람	28	《연극의 사회학, 희곡의 해석학》 펴낸 김성희교수 《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펴낸 정운현씨 29 《학교 그만둘 테니 기발은 돌려주세요》 펴낸 한경신씨 《비디오를 보는 남자》 펴낸 임영태씨
세계의 출판	30	독일 역사에 파괴된 삶의 드라마·외 23 / 독자 서평 / 32 신간안내 / 42 새로 나온 책
표지사진 / 김지옥		